

II. 2016학년도 1차 시험 해설



국어 영역

1. ②	2. ④	3. ⑤	4. ②	5. ①
6. ④	7. ③	8. ①	9. ①	10. ②
11. ⑤	12. ⑤	13. ④	14. ⑤	15. ⑤
16. ⑤	17. ⑤	18. ③	19. ④	20. ①
21. ④	22. ⑤	23. ②	24. ③	25. ④
26. ⑤	27. ③	28. ②	29. ④	30. ①
31. ③	32. ②	33. ③	34. ①	35. ④
36. ③	37. ④	38. ②	39. ①	40. ③
41. ②	42. ⑤	43. ④	44. ②	45. ③④

문법

1.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이해 정답 ②

②의 ‘깃들다’는 ‘아늑하게 서려 들다’의 의미이다. ②는 의미 상으로나 어법상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① ‘발차(發車)’는 ‘자동차, 기차, 전동차 따위가 떠남.’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차가 발차할’에서 의미상 중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기차기’를 삭제하거나 ‘발차할’을 ‘출발할’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 ③ ‘떠다’는 ‘1. 떠나 끈 따위를 두르다. 2. 물건을 몸에 지니다. 3. 용무나,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라는 의미이므로 ‘떠게’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맥락상 ‘두드러지게 드러나다.’의 의미인 ‘띄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이 문장의 주어는 ‘~고원은’이며, 서술어는 ‘많은 고원이 있다.’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다.
- ⑤ 조사 ‘이’는 문장에서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박 선생이’는 서술부인 ‘죄인으로 다스릴 증거를 잡지 못하였다.’와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죄인으로 다스릴’ 앞부분에 ‘그를’을 추가하여 죄인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높임 표현의 이해 정답 ④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주체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높임 표현이다. <보기>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잘못된 주체를 높이는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 ④는 결제를 하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표현이므로 ‘-시-’를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 ① ‘옷의 색상’을 높이고 있으므로 사물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서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이다.

- ② ‘-르게’는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상품’을 높이고 있으므로 사물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 ⑤ ‘제공’의 주체가 발화자이므로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제공합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사이시옷의 사용 이해 정답 ⑤

⑤의 ‘머리말’은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머리말]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인사말’이나 ‘예사소리’도 마찬가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머리말’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맞춤법에 맞게 사이시옷 표기가 사용되었다.

4. 조사의 용법 이해 정답 ②

②의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며, 다른 보기의 조사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5. 외래어 표기법의 이해 정답 ①

외래어 표기법 제1장 ‘표기의 원칙’의 제4항에서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의 진술이 적절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즉, 외래어의 된소리는 평음으로 표기하는데, <보기>의 ‘뽕, 씨’은 된소리이므로 ‘ㅂ, ㅅ’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이며, 나머지는 된소리 표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6. 로마자 표기법의 이해 정답 ④

<보기>에서 “ㄹㄹ’은 ‘ll’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울릉’은 ‘Ulleung’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다.

- ① ‘옥천’의 ‘ㄱ’은 자음 앞에 사용되었으므로 ‘k’를 사용하여 ‘Okch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백암’의 ‘ㅂ’은 어두에 사용되었으므로 ‘B’를 사용하여 ‘Baegam’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③ ‘설악’의 ‘ㄹ’은 모음 앞이므로 ‘r’을 사용하여 ‘Seorak’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⑤ ‘대관령’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대궐령]으로 발음되므로 ‘ll’을 사용하여 ‘Daegwallyeong’으로 표기해야 한다.

7. 이형태에 대한 이해 정답 ③

<보기>의 ‘와/과’처럼 그 역할이 같지만 앞말의 받침 유무

(다른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이형태라고 한다. ③에서 주격 조사 '이'와 '가'는 역할이 같고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므로 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잡은'의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며, '오느'의 '-느'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따라서 그 역할도 다르며, 이때의 '-은'과 '-느'은 앞말의 받침의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오느'의 '-느'은 '먹느'처럼 받침이 있을 때도 쓸 수가 있다. 다시 말해,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느'은 그 역할도 다르고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 ②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겠-'은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 ④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이며, '-자'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다.
- ⑤ '-고'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며 '-며'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연결하는 어미이다.

8. 한자어의 의미 이해

정답 ①

- ㉠ '다시 생각하기'는 '재고(再考)하기'와 같은 뜻이다. ㉡ '생각해 보게'는 맥락상 차별적 태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이라는 의미의 '성찰(省察)하게'와 어울린다.
- ② '숙고(熟考)'는 '곰곰이 잘 생각함'을, '관찰(觀察)'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며 살펴봄'을 의미한다.
- ③ '장고(長考)'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함'을, '감찰(監察)'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을 의미한다.
- ④ '사고(思考)'는 '생각하고 궁리함'을, '시찰(視察)'은 '두루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을 의미한다.
- ⑤ '회고(回顧)'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을, '진찰(診察)'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핌'을 의미한다.

9. 표현의 맥락상 의미 이해

정답 ①

- ㉡의 '이런 입장'은 지문에서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는 '그냥 말일 뿐이야', '한번 말해 봤어.'라는 말을 쓰는 입장(태도)을 의미한다. 즉, 차별적인 말을 바꾸는 일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언어는 언어일 뿐, 사람들의 심리, 사고, 감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①의 '막대기'와 '돌'이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는 말은 언어가 인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가장 ㉡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②③④⑤는 모두 언어가 인간의 사고, 행동, 정신,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

10. 어휘의 역사적 변화 이해

정답 ②

<보기>에서 '현대 국어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단어'에

해당하는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②의 부정 부사 '아니'는 중세 국어와 동일하게 현대 국어에서도 그 형태와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이다.

- ① 중세 국어의 '불휘'는 현대 국어에서 '뿌리'로 사용되므로 그 형태가 변화한 어휘이다.
- ③ 중세 국어의 '꽃'은 현대 국어에서 '꽃'으로 사용되므로 그 형태가 변화한 어휘이다.
- ④ 중세 국어의 '도코'는 현대 국어에서 '종고'로 사용되므로 그 형태가 변화한 어휘이다.
- ⑤ 중세 국어의 '여름'은 현대 국어에서 '얼매'로 사용되므로 그 형태가 변화한 어휘이다.

11. 고쳐쓰기 이해

정답 ⑤

㉡은 '~하기 위해서는'과 호응하려면 '~해야 한다.'가 이어져야 하므로 '~정성을 쏟는다.'로 수정한다 해도 어색한 호응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성을 쏟아야 한다.' 정도로 수정해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 ① '주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다. 따라서 '물'을 '물'로 수정해야 적절한 표현이 된다.
- ② 꽃에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바람에 대해 언급한 ㉡은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삭제해야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 ③ 앞 문장의 '1cm 이상 젖어 있다면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있다는 표시로 볼 수 있다.'로 보아 '물을 충분히 줘야 한다.'라는 내용과 호응하기 위해서는 '이상이면'을 '미만이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앞 문장에 물을 잎이나 꽃에 주면 좋지 않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에는 역접의 의미를 지닌 접속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작문

12. 개요의 수정 보완

정답 ⑤

㉡의 'SNS를 통한 위험 경고'는 자연 재해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방안이라기보다 자연 재해 예방법에 더 적합하므로 적절한 수정 의견으로 볼 수 있다.

- ① ㉠의 '교통 재해'는 전체 주제인 '자연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수정 의견이다.
- ② ㉡의 '생물 재해'는 '자연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변 재해'와도 중복되지 않는다.
- ③ ㉡의 하위 내용인 III-1, 2, 3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방안이다.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④ '구호 단체에 대한 감독'은 상위 항목인 '구호 방안'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데다, 전체 주제인 '자연 재해'

로 인한 재난과 나눔'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수정 의견이다.

13. 조건에 맞게 내용 생성

정답 ④

④의 경우, '기부가 ~ 생명수가 된다면' / '누군가의 봉사가 ~ 등불이 될 것입니다.'에서 비슷한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대구의 방법이 쓰였다. 또한 '갈증을 달래는 생명수'와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비유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당신의 기부'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산소와 같은 것'에서 비유적 표현을, '봉사와 기부'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대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② '봉사'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대구와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우리를 살려주는 구세주'에서 비유적 표현을, '의연금'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지만, 대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⑤ '태풍의 진로'에서 비유적 표현을, '오늘은 ~ 이재민이지만' / '나중에는 ~ 될 수 있습니다.'에서 대구를 찾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사용되지 않았다.

독서 - 예술

[14~16] 지문 해제

미술에서의 공간 표현 - 차원을 중심으로

이 글은 미술에서의 공간 표현을 차원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한 글이다. 서양화가들은 원근법과 음영법을 사용하여 3차원 세계를 2차원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이는 낮은 차원의 이미지에서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얻는지 보여 준다. 하지만 인간은 높은 차원이 더 많은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굳이 모든 정보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취하고 세부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일 따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4.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마지막 문단의 '우리는 대체로 3차원이 제공하는 정보 모두에 신경 쓰지는 않는다.'와 '중요한 정보를 취하고 세부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일종의 실용적 데이터 조작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 방식일 따름이다.'를 통해 사물을 실제와 근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세부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의 진술처럼 실제와 근접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고유한 세부 정보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2문단의 '다차원 공간이란 집을 살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의 공간처럼 추상적일 수도 있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2문단의 '어떤 사람을 1차원적 인간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4문단의 '르네상스 이후 대부분의 서양화가들은 원근법과 음영법을 사용하여 2차원 평면 위에 3차원 환영을 만들어 냈다.'와 '대상보다 낮은 차원의 그림을 그릴 때에 손실된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정보가 부가되기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4문단의 '투영은 차원이 높은 원래의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삼각한다. 대상보다 낮은 차원의 그림을 그릴 때에 손실된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정보가 부가되기도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5. 표현의 맥락상 의미 이해

정답 ⑤

①의 '다른 방향'은 차원이 늘어날 때 축이 더해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제시된 표현이다. 즉, 4차원 공간의 점은 3차원 공간에 1개의 축이 더해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므로, ① '일정'하거나 ② '반대' ④ '구체적' 등 서로 영향 관계에 있거나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③의 경우 '추상적' 방향에 대한 설명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⑤의 '서로 독립적인 방향'이 맥락상 가장 적절한 답이다.

16. 정보의 적용을 통한 구체적 사례의 이해

정답 ⑤

㉠에서는 2차원의 면을 조합하여 3차원 물체를 재구성한다고 하였으므로, ⑤의 단층 촬영한 2차원 사진들을 여러 장 겹쳐 3차원으로 환자의 입체 영상을 재현하는 사례가 ㉠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①의 '표면', ②의 '영화', ③의 '그림', ④의 '회화'는 모두 3차원에 대한 정보를 2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학 - 고전 시가

[17~21] 작품 해제

(가) 작자 미상, 「사모곡(思母曲)」

작자, 연대 미상의 고려 속요로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예찬한 노래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그것이 훨씬 깊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진술한 언어로 형상화하였다. 이 노래에 호미와 낮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작자는 농민 계층일 것으로 짐작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호미의 무덤'에, 어머니의 사랑을 '낮의 날카로움'에 비유한 것은 참신하고 뛰어난 착상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고려 속요가 지니고 있는 3음보 율격의 반복 어구와 대구의 사용, 여음(위 덩더동성)의 사용이 있다.

(나) 정철, 「훈민가(訓民歌)」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

하면서 백성들을 계몽(啓蒙)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일명 ‘경민가(警民歌)’ 또는 ‘권민가(勸民歌)’라고도 하는데, 송나라 진양이 지은 ‘선거권유문’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한다. 총 16수로 된 연시조로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간의 우애, 경로사상, 이웃 간의 상부상조, 부부와 남녀 사이의 규범, 학문과 인격의 수양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주제로 삼고 있다. ‘훈민가’의 창작 의도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지만, 지은이는 사대부 계층의 선형적인 가치 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정감 어린 어휘들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제재들을 다룬 어떤 작품들보다도 강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다) 작자 미상, 「사친가(思親歌)」

월령체 형식으로 일 년 열두 달의 명절과 연관시켜 부모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을 노래한 것으로, 부생모욕의 은혜에 대한 보답, 부모님에 대한 효도 권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표현에 있어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한 것이 특징이다.

17. 작품의 내용상 공통점 이해

정답 ⑤

(가), (나), (다)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가)는 호미와 낮에 비유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며, (다)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진술이다.

- ① 부모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은혜에 대한 보답은 (나)의 2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잘 섬기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가), (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 ③ (가), (나)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에서는 ‘슬프다 우리 부모 ~인줄 모르시나’라는 표현을 통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자욕양이친부재(子欲養而親不在,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여 부모를 여윈 슬픔과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드러냈다.
- ④ 부모의 은혜에 대한 작품들이지, 공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은 아니다.

18.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 이해

정답 ③

(나)의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에서 대구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 (다)의 ‘연자(燕子)는 나라드러 옛 집을 차자오고 / 호접(胡蝶)은 분분하야 구색을 자랑한다’에서도 대구를 바탕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

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 대구법이 사용되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① (나)에서는 제목인 ‘훈민가’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점에서, (다)에서는 ‘완월(玩月)하는 소년들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와 (다) 모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나)는 2수에서, (다)는 ‘슬프다 우리 부모 ~인줄 모르시나’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나)는 구체적인 청자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는 첫 부분의 ‘완월(玩月)하는 소년들아’에서 청자를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다)는 월령체 즉, 일 년 열두 달의 명절과 연관시켜 부모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19.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④

(가)에서 ‘위 덩더동성’과 ‘아소 님하’라는 조음구가 쓰이긴 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아니다. ‘위 덩더동성’은 악기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며, ‘아소 님하’는 청자를 부르는 의미 정도로 쓰인 조음구이다.

- ① ‘-미르논’, ‘-세라’와 같이 동일한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각각 호미와 낮에 비유함으로써 대비적인 구도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아소’, ‘-세라’와 같은 감탄 어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호미’와 ‘낮’과 같은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 이해

정답 ①

(다)의 화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느낀 후회, 애달픔, 그리움 등의 정서를 갖고 있다. (가)의 화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며 ‘아소 님하’라고 탄식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지는 ‘아소 님하’라는 감탄사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데에서 포착할 수 있다. (다)는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돌아가신 후에는 구분 없이 다 같이 애달프다고 했다. 따라서 (다)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쉽고 그리우니 (가)의 화자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말해 줄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①의 앞부분은 (다)의 화자에 해당하고, 뒷부분은 (다)와 (가)에 모두 해당하는 진술이다. 따

- 라서 ①이 가장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④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가)의 화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진술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 ⑤ ‘자식으로서의 아픔’이 돌아가신 부모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에게 할 수 있는 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1.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 정답 ④

공자(孔子)의 일화를 살펴보면, 공자가 일찍이 제자들에게 각기 포부를 물었는데, 모두들 정치에 관심을 두었으나, 증점(曾點)만은 “봄에 여러 친구들과 기수에 목욕하고 무우에 바람 쏘이고 시 읊으며 돌아오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는 자연을 즐기려는 그의 높은 뜻을 칭찬하였다는 일화(논어 선진편)가 있다. 여기서 ㉠ ‘기수(沂水)’는 중국의 지명임과 동시에 강의 이름이며, ㉡ ‘무우(舞雩)’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임과 동시에 중국의 지명이다. 따라서 둘 모두 지명을 나타내므로 비유 관계라 보기는 어렵다.

- ① ㉠ ‘남’은 ㉡ ‘어마님’의 사랑을 비유한 것이므로 비유 관계라고 볼 수 있다.
- ② 부모님의 ㉢ ‘은덕’이 ㉣ ‘하늘’과 같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유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③ 부모님의 ㉤ ‘정’이 ㉥ ‘하해’(넓은 바다)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유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 ⑤ ㉦ ‘산화’(산꽃)가 ㉧ ‘홍금’(붉은 비단)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유 관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독서 - 인문

[22~25] 지문 해제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 운영 중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팔아 스스로 노비가 되는 ‘자매(自賣) 거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조선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인 간의 신분 이동을 규제했다. 그러나 대규모 기근과 전쟁의 발생, 정부의 힘만으로 유망민들을 모두 구제하기 어려웠던 점, 화폐 경제의 발달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자매(自賣)를 허락하게 되었다. 또한 자매(自賣) 거래를 통해 노비가 된 사람들이 원래 신분이었던 양인이 되기 위해 도망치거나 소송을 하게 될 경우를 피하고자 매수인은 관에서 증명하는 증빙 문서인 ‘데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들은 자매(自賣)거래 전 관의 입지를 받아 보증을 입증하는 문서인 ‘데깁’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예방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22. 구체적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4, 5문단을 통해 관청의 증명서는 본인 의사로 자매(自賣)함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자매한 노비가 도망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1문단의 ‘득열은 자신을 팔아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입지(立旨)를 작성해 달라고 읍소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마지막 문단의 ‘득열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미래 후손인 후소생까지 포함하여 매매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굶주려 사망 직전에 이른 사람을 구제하여 살린 경우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사목(事目)을 반포하기도 했다.’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생계가 어려운 백성이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4문단의 ‘자매자는 본래 양인이었다.’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자매(自賣)를 허용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그 배경을 ‘득열’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②가 적절한 진술이다.

- ① 글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조선 시대 신분 이동 제도였던 ‘자매(自賣)’인데 이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자매(自賣)’ 제도에 대한 비교와 대조 역시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①과 같이 ‘자매(自賣)’ 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자매(自賣)’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4.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의 ‘득열’은 자매(自賣) 거래의 대상인 매물임과 동시에 스스로 팔려는 사람이므로 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의 ‘대도호부사’는 자매(自賣) 거래가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고 보증해주는 증빙 문서인 ‘데깁’을 발행해 주고 있으므로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의 ‘조광득’은 매도인인 ‘득열’을 구입한 사람이므로 매수인이라고 볼 수 있다.

2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④

㉔ ‘고공(雇工)’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기 전 이들을 거두어 살려 주면 노비나 고공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관가에서 직접 지정하는 노비가 아닌 사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노비를 가리키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고공(雇工)’의 사전적 의미는 ‘1. 머슴(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내). 2. 품팔이(품삿을 받고 남의 일을 해 주는 일). 3. 남의 공장에서 고용살이하는 직공’이다.

문학 - 현대 시

[26 ~ 30] 작품 해제

(가) 정지용, 「압천(鴨川)」

이 작품은 여러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시의 처음과 끝에 ‘압천(鴨川) 십리(十里) 사벌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함께 제시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애상적이고 우울하다. 특히 ‘땀뭉치 울음’과 ‘저녁 물바람’과 같은 소재들은 이러한 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목이 자졌다’, ‘찬 사람의 마음’, ‘나그네의 시름’ 등을 통해 화자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떨쳐 내지 못하고 있으며 나그네로서 느끼는 ‘시름’이나 ‘고뇌’를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이 작품은 조국을 잃고 세계와 단절되어 빛을 잃은 시인이 어둠 속을 걸어온 자신의 삶의 역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고뇌에 찬 노정을 ‘물’의 이미지로 형상화시켜 ‘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마지막 시행의 ‘홀러간 생활’에서 ‘홀러간’이라는 ‘물’의 이미지를 그의 ‘생활’에 투사한다. 화자는 이러한 노정을 통해 비극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다) 김광섭, 「우수(憂愁)」

해방 전에 쓰인 김광섭의 초기 시는 현실 부정과 자기 연민, 기다림 등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는 30년대 후반의 암울한 시대 상황으로 인한 지식인의 우수와 비애를 그린 것이다.

26. 세 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⑤

(가)의 ‘나그네의 시름’, (나)의 ‘노정에 홀러간 생활’, (다)의 ‘비애(悲哀)의 시인(詩人) 고뇌(苦惱)를 안고 / 또한 그대로 더 붙어 밤의 대양(大洋)으로 가라.’를 통해 세 작품의 화자는 공통적으로 안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고뇌에 찬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가)~(다) 모두 인간의 고달픈 삶을 그리는 데 자연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연에 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보

는 어렵다.

② (가)~(다) 모두 삶의 목표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신적인 노력 역시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다) 모두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을 통해 회한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젊은 날을 ‘밀항하는 정크’로 표현함으로써 아픈 기억을 나타낸 것이 (나)에 드러나기는 하나, 누우치고 한탄한다는 의미의 회한(悔恨)의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나)에서는 어둠 속을 걸어온 자신의 삶의 역정을 ‘물’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와 (다)에서는 고난의 역사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27.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 정답 ③

①, ②, ③은 각각 (가), (나), (다)의 시적 화자로 모두 고뇌에 찬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나)에서는 ② ‘나’로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노출된 데 비해, (가)에서는 ① ‘나그네’, (다)에서는 ③ ‘시인’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① 만약 작가의 입장에서라면 작품 속 모든 것들이 시를 구성하기 위한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작품 밖의 작가가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로서 발화하는 경우 그 시적 화자는 작가의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 시적 대상으로 삼은 주체는 작가가 아니라 화자이다. ②, ③은 시적 화자와 동일시된 존재이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으로 삼은 존재는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로 볼 수 있다.

② 정서의 부산물이라기보다 정서를 직접 느끼는 시적 화자로 볼 수 있다.

④ ①, ②, ③이 서로 갈등하고 조화한다기보다 다른 표현으로 시적 화자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③이 ①, ②의 이상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8. 작품의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 ②

(가)에서 ‘보내기’, ‘마음’, ‘보금자리’, ‘물바람’, ‘시름’ 등 명사로 끝을 맺은 시행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이들 시어가 사물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여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① 말줄임표는 ‘해는 저물어……’와 같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해가 저문다는 외적 상황만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말줄임표는 필요 없는 부호가 되었을 것이다. 해가 저무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말줄임표인 것이다. 이어지는 ‘목이 자졌다’가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③ 날이 저물었는데 갈 곳 없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인 화자의 정서와 풍경이 맞물리

도록 표현하고 있다.

- ④ 1연과 마지막의 7연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수미 상관의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저물어’, ‘날이 날마다’, ‘울음 울고’, ‘춤을 추어’ 등 단어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시 전체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9. 작품들 간 시어의 의미 이해 [정답 ④]

㉠ ‘어둠’은 화자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느끼는 비애나 고뇌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시어이다. 그러나 ㉡ ‘산호도’는 전설에서 읽어 본 구경도 못하는 곳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자가 바라는 소망의 공간, 이상향을 의미하는 긍정적 시어라고 볼 수 있다.

- ① ㉠ ‘뺨조각’은 깨어진 것이므로 화자의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는 시어라 할 수 있다.
- ② ㉡ ‘정크’는 밀향한다고 하였으므로 역시 화자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시어라 할 수 있다.
- ③ ㉢ ‘암초’는 배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화자에게 있어 장애물과 같은 부정적 시어라 할 수 있다.
- ⑤ ㉣ ‘소라 깎질’은 밀물에 밀려온 것으로 보아 배를 타고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흘러 이동하는 고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시어라 할 수 있다.

30.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이해 [정답 ①]

마지막 두 행인 ‘비에(悲哀)의 시인(詩人) 고뇌(苦惱)를 안고 / 또한 그대로 더불어 밤의 대양(大洋)으로 가라.’로 보건대,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1연의 ‘등불로 ~ 감감하다.’와 2연의 ‘자유는 ~ 더하노라.’부분에서 역설적 의미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물결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유라는 관념을 떠올리고 있다.
- ④ 3연의 ‘갈매기’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으며, 마지막 연의 ‘새’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시인의 고뇌를 안고 떠날 것을 말하고 있다.
- ⑤ 마지막 행의 ‘가라’에서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독서 - 사회

[31 ~ 33] 지문 해제

범죄자 전환 프로그램의 종류와 전개 상황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투옥의 경험으로 인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자비로운 감도를 받게 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전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보호관찰, 가석방, 청소년 법정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잘 실시되었지만 범죄자에게

는 관대히 다루는 것보다 처벌과 같은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결국 다시 엄격히 감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교정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전의 처벌 위주의 교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스웨덴의 전환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수의 죄수들만 엄격하게 구금시키고 있으며, 외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프로그램이 미국으로 직수입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일부분이 될 필요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31. 글의 핵심 내용 파악 [정답 ③]

제시된 글은 전환 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종류와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③의 ‘전환 프로그램의 전개와 문제점 극복 방안’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32. 세부 정보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

㉠은 법원이 임명한 사람, ㉡은 가석방 위원회, ㉢은 청소년 심판관이나 판사, ㉣은 지역 사회, ㉤은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 ①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인 ‘이에 사람들을 구류가 아닌 좀 더 자비로운 감도를 받게 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되었다.’와 2~4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은 ‘너무 어려서 성인과 같이 취급할 수 없는 피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 ㉡과 달리 연령이 어린 청소년들이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④ ㉤은 이전 ㉠, ㉡, ㉢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의 프로그램임을 추론할 수 있다.
- ⑤ ‘참조한’의 주체는 이 글의 저자다. 저자는 스웨덴의 전환 프로그램을 고찰한 다음 미국의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33. 정보의 적용을 통한 구체적 사례의 이해 [정답 ③]

<보기>의 사건은 동일한 범죄의 성인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형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로서의 국가 원칙’이라는 표현을 통해 피고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형량 즉,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부과된 형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할 수 있다.

문학 - 고전 산문

[34 ~ 37] 작품 해제

박지원, 「호질」

‘호질(虎叱)’은 ‘범이 꾸짖는다.’라는 뜻으로 ‘북쪽 선생’

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위선적인 선비 계층과 ‘동리자’로 대표되는 위선적이며 부도덕한 인물, ‘동리자’의 다섯 아들을 포함한 어리석은 고을 사람 전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북곽 선생’이 똥구덩이에 빠진 장면은 선비의 실상을 가장 적나라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으로, ‘북곽 선생’을 똥과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추한 모습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새벽에 ‘북곽 선생’을 만난 ‘농부’는 눈앞에 나타난 선비의 이중적인 모습을 간파하지 못한다. 선량해되 타자나 세계의 진실에 눈뜨지 못한 어리석은 대중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북곽 선생’은 밤의 모습에서 다시 근엄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범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평면적 인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4.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 ①

이 작품에서 호랑이는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대상인 인간과 비교하며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 ② 호랑이는 대상인 인간에게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다기보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대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긴 하나, 대상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호랑이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인간을 꾸짖고 있다.
- ④ 자신과 대상의 입장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바탕으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대상인 인간의 속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구분과 분류의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35.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

정답 ④

이 작품에서는 호랑이의 대화 첫 문단의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와 3문단의 ‘호랑이나 사람이 다 한 가지 동물이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호랑이와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사람을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호랑이와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① <보기>의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라는 부분을 통해 호랑이가 흉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보기>의 호랑이는 인간을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약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이 작품의 청자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 ⑤ <보기>의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었요?’에서 인간의 잘못은 창조주의 과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36. 정보와 자료의 비교를 통한 이해

정답 ③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인자(仁者)라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나니’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을 비판하는 호랑이 역시 인자(仁者)이어야만 그 비판이 합당하다는 것인데, 이 작품에서 호랑이는 인자(仁者)가 아니므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해보면, 인간이나 호랑이는 서로 비슷한 존재가 되므로 조금 낮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은 이르는 말인 ‘오십 보 백 보’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① 어떤 한 곳에 가 꼭 틀어박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이르는 말.
- ②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이르는 말.
- ④ 만만하기는 하지만 자칫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선불리 해치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음을 이르는 말.
- ⑤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이르는 말.

37. 구체적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의 ‘오직 천명(天命)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는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은 호랑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긴 하나, 사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적다는 의미이므로 ㉠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문학 - 현대 소설

[38 ~ 42] 작품 해제

김승옥, 「서울, 1964 겨울」

‘나’와 ‘안(安)’이라는 25세 동갑내기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고립감과 단절감을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은 결코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심각하고 진지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나 가치 지향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실과 내적 연관을 갖지 못한 주관적이고 자의식적인 사소한 대화만 있을 뿐이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나’, ‘안(安)’, ‘사내’ 등으로 익명화(匿名化)되어 있다. 현대 도시인의 삶의 속성으로 자기중심주의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의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적 공감과 정감어린 소통이 사라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쓸쓸하고 우울한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38. 구체적 정보에 대한 이해 및 확인 [정답 ②]

마지막 부분의 '가끔 이렇게 밤거리를 쏘다니는 밤엔 난 꼭 여관에서 자고 갑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안'이 해방감을 느끼려고 가끔 밤에 나온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나' 역시 그러한지는 알 수 없다.
- ③ '나'가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습관처럼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④ 대화 내용으로 보아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 ⑤ 대화 내용을 통해 두 사람은 실재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①]

<보기>의 핵심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뿜는 자기만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하며,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 '안'이 파란 불꽃을 튀기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나 ㉡의 '나'가 의미 없이 벽돌 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 것이 <보기>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40. 작품 속 인물 간 대화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영보빌딩 안에 있는 변소 문에 만들어 놓은 손톱자국에 대한 대화에서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안'은 뒷맛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나'는 기분이 좋았음에도 이 말을 하려다 말을 그치고 동의하는 고갯짓을 했다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밤 외출에서 해방감을 느낀다는 '안'이 '나'에게 동의의 질문을 구하는데 '나'는 '글쎄요'라는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 대화가 진행되는 국면에 따라 두 인물의 미묘한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두 인물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으며 사유 방식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 ② 둘은 서로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심화시키거나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지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는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려는 '안'의 태도나 동의를 구하는 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시종일관 자신이나 '안'의 행위에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 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대화도 없을뿐더러 연대감 역시 처음에 가졌다고도 할 수 없으며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1. 작품 속 인물의 심리 이해 [정답 ②]

㉤에서 '나'가 '안'이 의미 없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에 어리둥절함을 느끼는 이유는 작품에서 '나'와 '안'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면, '나'가 순간적으로 자신이 행한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껴 화가 났다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2.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심층적 이해 [정답 ⑤]

작품에서 '나'는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안'에게 어리둥절함을 느끼며, 의미 부여 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손톱자국에 대한 대화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 부잣집 아들인 대학원생의 행동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것 등을 종합해 보면, '나'는 '안'과의 대화 속에서 사고하는 주체로서 대상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부분에 드러난 '나'의 심리 상태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행한 행동들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껴 화가 난 것이다. 따라서 사고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③④ '안'의 대화 부분 중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형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부분을 통해 '안'은 대상의 의미를 인정하려 했고, 주체와 대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고하는 주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독서 — 연설문

[43~45] 지문 해제

스파르타쿠스의 연설

이 글은 스파르타쿠스가 로마의 핍박에 반기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그 정당성을 연설하는 내용이다. 어린 시절 로마군에 비참하게 당한 자신의 동족과 가족들을 비롯하여 로마의 검투사가 되어 어릴 적 동료들 장례 지내지 못한 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반란을 자초한 것은 로마이며 로마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하고 있다.

43.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 [정답 ④]

작품 마지막 부분의 '여러분이 만일 사람이거든 나를 따라 일어나 여러분의 조상이 험준한 산악에서 적을 막던 것같이 산길로 들어서서 원수와 싸우시오.'를 보면 청중과 관련 없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이번에는 제가 개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등 단정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가족이 살해당하고 어릴 적 벗을 검투로 죽인 과거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투우장에서 악마같이 적과 결투를 하며’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비판함으로써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마지막 부분의 ‘만일 살육하려거든 우리의 압제자를 살육하라. 만일 죽으려거든 영예로운 싸움에 죽음을 바치라.’를 통해 극단적인 두 상황을 제시하여 그중 하나를 청중들이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4.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심층적 이해 정답 ②

㉠의 ‘무서운 전쟁은 생각도 말라’는 어머니의 말은 전쟁이라는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는 인류의 자각과 자동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의미의 전쟁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②의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하지 말라는 교훈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평화롭게 살던 과거의 삶으로 노예인 검투사로서 로마에 반기를 든 현재의 삶과는 대비된다.
- ③ ㉡에서 친구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켜 주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에서 친구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었듯, 로마의 체제에서는 자신 역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개죽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죽음이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현재의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자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5. 표현 방식의 이해 정답 ③④

㉠에는 원수인 로마를 ‘은인’으로 표현하였으므로 반어법(역설로도 볼 수 있음),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며 ‘오, 로마여!’ 부분에서 영탄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의 ‘님은 갓 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서 반어 또는 역설을 ④의 ‘한 줄의 시는커녕 ~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에서 반어적 표현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의 표현 방식과 가장 가깝다.

- ① ‘물고기가 늪’과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에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② 순간적인 것(꽃, 웃음)과 영원한 것(열매, 눈물)을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향료를 뿌린 듯’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